

촛불시위 현장에도 등장한 가사문학... 향유 기회 늘려야

新湖南誌

(30)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8부 여행과 문학

② 누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국가사문학관

사대부부터 항일운동가까지 즐긴 대중 장르
현실풍자 가사 등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많아
가사문학관서 발굴한 작품만 1만5천여편
전문성 갖춘 문학관학에서 도입하고
다양한 기획전시·문화 프로그램 마련해
시끌벅적한 문화예술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가사문학관 전경.



면양정.

국윤주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위원

16세기 본격화된 사립정치와 함께 시작돼 면면히 이어져온 호남문화의 원류 중 하나가 바로 누정문화다. 가사문학권이라 불리는 광주-담양 쪽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누정들이 뚜렷한 자취다. 면양정과 송강정, 소쇄원과 환벽당, 식영정 등 우리 지역의 대표 누정들과 짝하는 문학작품을 떠올릴 때 단연 사람들은 면양정가,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작품을 꼽는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칭해서 누정·가사문화권이라 부르는데 시비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 누정과 연관된 문학들을 누정문학이라 통틀어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누정제정과 같은 한시와 누정기 같은 한문 산문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면양정과 송강정, 식영정 등 우리 지역의 대표 누정들과 짝하는 문학작품을 떠올릴 때 단연 사람들은 면양정가,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작품을 꼽는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칭해서 누정·가사문화권이라 부르는데 시비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가사만큼 대중적 인기를 누린 장르가 또 있었을까? 시기별로 다소간 주도적인 계층이 있긴 했지만 사대부로부터 서민과 부녀자, 승려나 천주교인, 풍류인이나 항일운동가에 이르기까지 가사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문학 장르였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 그동안 발굴한 가사 작품만도 1만5000여 편이다. 4000여 수의 시조에 비해서도 적지 않다.

갑오경장 이후로 전통 문학의 맥이 끊겼다고 여겨졌지만 발굴 조사 결과 여성가사(규방가사) 분야에서 20세기 이후로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가사는 창작·전승되고 향유됐음이 밝혀졌다. 많은 가사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며 700여년의 흐름으로 면면히 이어져왔지만, 대표적 고전작품으로 첫손에 꼽히는 것으로는 송순의 '면양정가'와 송강의 '사미인곡'·'속미인곡'·'관동별곡' 등이다. 이런 평가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기록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록으로 김만중의 '서포만필'을 들 수 있다.

송강의 '관동별곡'과 '전후사미인가'는 우리나라의 '이소'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잠든 문장은 오직 이 세 편뿐인데, 다시 이 세 편에 대해 논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후미인곡'(곧 '속미인곡')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이유로 일동삼승이라 불리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의 한 가운데 지점인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한국가사문학관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가사문학관이 건립될 무렵에 영남지방의 규방가사 연구자들이나 관련 문화단체들에서 아쉬운 항변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담양 건립에 수긍한 내력에는 송순과 송강의 가사작품들이 가사문학사상 차지하는 위상 때문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듯하다.

한국가사문학관 건립으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을 해냈다. 전문가들은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를 설립해서 뒷받침함으로써 가사문학관 운영에 힘을 보탤다. 교육부 등의 지원을 받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가사작품을

발굴·정리했다. 한국가사문학대상을 마련해서 새로운 가사 창작을 통해 가사문학을 현재와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12회째 가사낭송대회를 개최해서 보다 친숙한 가사문학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문학잡지 '오늘의 가사문학'을 계간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문학관과 주변의 누정들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풍류남도나들이 '누기풍류차사'와 같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체험해보는 행사로 주말마다 인기리에 펼쳐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건립을 주도하고 교수·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문학관으로서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만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저간의 사정만으로 가사문학관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사문학관은 전국의 문학관 가운데 고전문학 분야로는 아주 드물게 설립된 문학관이다. 최근에 개관한 익산의 시조문학관, 나주의 백호문학관을 빼고는 유일무이하다.

선편을 잡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선, 문학관학에서 도입이 시급하다. 건립초기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온 문제다. 현재 가사문학관은 담양군의 6급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회계를 총괄하는 공무원 외에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3~4명이 인력의 전부다. 다른 문학관들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문학교육 문학예술의 향유를 선도할 전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태부족인 인력구조다.

마침 '문학진흥법'이 작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그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문학진흥법의 골자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문학관의 설립·운영 지원뿐 아니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학관을 통해 대중들과 호흡하는 문학,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예술로서 문학을 향유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문학관학예사를 본격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심분 활용해야 하겠다.

가사문학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함께했고, 삶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품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행가사가 역사자료와 함께 풍부하게 남아있다. 자서전처럼 인생을 돌아보는 가사, 선조의 제사에 제문처럼 활용할 제문 가사, 촛불 시위 현장에 등장한 4음보의 현실풍자 가사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다채로운 기획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끌벅적한 문화예술기관으로 사랑받는 가사문학관을 기대해본다.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위원
-계간 '오늘의 가사문학' 편집위원
-전남대 국문학과 박사 수료

전라도 들여다보기

문향 장흥과 보림사

김형주

장흥은 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문학의 고향이요, 문필의 고장이다. 장흥의 역사를 보면, 마한시대에는 이 곳에 건마국(乾馬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삼국시대에는 오아현(烏兒縣), 대로현(代勞縣), 마읍현(馬邑縣), 계수현(季水縣)으로 있었는데 모두 보성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초에 오아현이 정안현으로, 마읍현이 수령현으로 고쳐져서 영암에 예속되었다. 또한 대로현은 회령현으로, 계수현은 장택현(長澤縣)으로 고쳐져 계속 보성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그 뒤 정안현은 인종 때 공예태후 임씨(懿肅太后任氏)의 고향이라 하여 장흥부로 승격되었다. 이 무렵 장흥부는 회령현·수령현·장택현과 영암군의 속현이었던 탐진현 등 4현을 이속시켜 거느리게 되었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1392년 부사 황보덕이 수령현의 중령산에 성을 쌓아 장흥부의 치소를 만들었고, 1413년 장흥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조선중기 백광홍(白光弘)·백광훈 형제는 주옥같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후기 춘재 위백규(魏伯圭) 선생은 경학·역사·지리·한의학에 통달한 호남의 실학자로서 문명을 떨쳤다.

문장과 학문의 전통은 해방 이후로도 면면히 계속되어 이정준, 송기숙, 한승원, 이승우 등 쟁쟁한 작가들을 배출하여 현대 한국문단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의 가지산파(伽智山派)에 속하는 보림사는 체징(體澄)선사에 의해 860년 창건되었다. 이후 중창을 거듭해 20체가 넘는 전각의 대사로찰로 발전하였으나, 6·25 동란으로 사천왕문과 외호문을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다가 순차 복원되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 제44호인 보림사(寶林寺) 삼층석탑 및 석등, 국보 제117호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55호인 보림사 동부도(東浮屠), 보물 제156호인 보림사 서부도, 보물 제157호인 보림사보조선사상성탑(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 보물 제158호인 보림사보조선사상성탑미 등 다수가 있다.

대적광전 앞 쌍탑 형식의 삼층석탑은 남탑이 높이 5.4m, 북탑은 5.9m이다. 석탑의 중간에 위치한 석등은 높이 3m로서 지대석, 간주석, 화사석, 보주 등을 갖추고 있다. 북탑에서 발견된 명문으로 보아 870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과 석등은 단순 소박한 고풍미(古拙美)를 보여주며 오랜 세월에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불로 대좌와 광배를 잃고 불상만 남아 있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 신라 현안왕 2년(858) 무주장사(武州長沙·광주와 장흥)의 부관이었던 김수종의 시주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선종 불교의 성행으로 전국 곳곳에 사찰의 건립이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철불은 금동불보다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까닭에 지방 유지들의 과감한 재원 출연으로 철불의 제작이 통일신라 후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철불은 엄격한 형태미의 '중앙 양식'을 탈피해 서민정서에 부합되는 '지방 양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청명한 가을날 남도의 문향(文香) 장흥을 찾아서 그윽한 보림사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 **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은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